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1993. Vol. 2, No. 1, pp. 181~193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갖는 영재성의 개념 및 판별상의 정확도*

조 석 희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부장)

<目 次>

Ⅰ. 연구의 목적 및 이론적 배경
Ⅱ. 연구방법
Ⅲ. 논의

Ⅰ. 연구의 목적 및 이론적 배경

"요즈음의 젊은 부모들중에는 자기 아이가 영재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영재교육이나 조기 교육을 다루는 기사들은 대체로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과연 요즈음의 젊은 엄마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아이는 영재'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일까? 또한 시중에는 각종 영재교육 자료, 영재교육 학원들이 범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만한 '영재'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아동의 능력 수준과 욕구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들의 잠재 능력을 더욱 더 계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영재들을 위하여 생산적인 습관과 태도를 길러주지 못할 때 영재들은 학습 부진을 경험하게 된다. 영재의 학습 부진 현상은 가정에서의 태도 및 가치관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부모 아동간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초래된다는 것도 여러 연구에 의하여 밝혀져 있다.

---

* 이 논문은 1992년도 한국아동학회 정기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임.

다행히도 요즈음의 젊은 어머니들은 일찍부터 아이의 영재성에 관심이 많다. 때로는 생후 48시간안에 영재성을 판정하려는 경우도 있다(Goodnow, 1984). 이러한 조기 영재 판별은 부모들이 갖고 있는 영재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며 이러한 암시적인 개념은 부모 자식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Holloway & Hess, 1985). 이러한 부모의 잠재적인 개념은 부모 자식간의 인지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자녀와 그 자녀의 능력 수준에 대한 지식에 따라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인지적인 요구를 달리 하게 될 것이다(McGillicudy-Delisi, 1985). 유아의 능력과 관심에 관하여 잘 아는 엄마는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나치게 쉬운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자녀를 지루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Hunt & Paraskevopoulos, 1980).

부모의 유아기 자녀에 대한 기대는 후기 학교 생활에서의 수행에 장기적이며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4세된 자녀의 엄마가 기대하는 발달 기능 및 학업 성취와 그 자녀가 6세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인지적인 성장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ss, Kashiwagi, Azuma, Price, & Dickson, 1980). 언어를 통한 자기 주장, 사회적 기능, 학교생활 관련 기능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학령 초기의 유능함간에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는 장차 업적이 뛰어나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만한 업적을 남길 가능성이 많은 아동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개념은 요즘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에서의 우등생과는 동일시 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세계적인 수준의 업적을 남기려면, 능력 뿐 아니라, 창의성, 과제에 대한 집착력이 동시에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알려져 있다(Renzulli, 1978).

진정한 의미의 영재는 外在的인 動機, 예를 들면 좋은 학교 성적, 좋은 수입이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內在的인 動機, 즉 자아실현을 위하여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외부의 기준에 맞추어 행동함으로써 인정받는 데 급급하기 보다는, 외부의 인정을 받든 안받든 상관없이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진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Alvino, 1985).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영재성의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가지로서 첫째, 부모는 과연 자녀의 능력수준에 관하여 얼마나 정확히 판단하는가를 밝히는 것이고, 둘째, 부모가 자녀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영재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가. 피험자

기독교 방송(CBS) 문화센터 영재연구실을 찾은 부모들 중 현재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226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나아가 지난 2년간 영재연구실을 찾기는 하였으나 영재로 판별되지 않은 아동들도 비교를 위한 피험자로 삼아 조사하였다. 따라서 무선표집 집단이라기 보다는 자녀의 영재성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부모와 영재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동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지난 2년간 자녀의 영재성에 관하여 개인적인 또는 교육적인 이유로 자녀의 영재성을 평가받고자 CBS 영재연구실을 찾은 학부모는 726명에 달하였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8.5년(5 : 0 부터 12 : 12 까지)이고, 출생순위는 맏이로부터 5번째까지 있으며 그중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연한을 산출한 결과, 12년 부터 23년 정도까지 이르며 평균 교육 연한은 17.8년(sd=2.2년)이었다. 직업의 전문성, 또는 부모교육 수준에 있어서 고득점자와 저득점자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나. 연구방법

부모들은 자녀의 영재성 여부를 평가받기 위해서 영재연구실을 찾았다. 아동이 지능검사를 받는 동안 행동특성 체크리스트에 자신이 자녀의 특성에 관하여 아는 대로 체크하였다. 행동 특성 체크리스트는 미국의 페어펙스 카운티 교육청이 사용하는 다측면 판별도구(Multi Dimensional Screening Device)중의 일부로 우리나라의 영재들의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번안된 것을 사용하였다(이연섭, 조석희(1980)을 참고할 것). 이 체크리스트는 학습, 동기, 창의성, 지도적 특성, 의사소통, 공간 및 추상적 사고와 환경적응등의 측면별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특성들을 각 영역별로 10가지씩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적 측면

과 환경적응 측면의 특성들은 지적 학문적 영재를 판별하는데 그다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다. 부모들은 각 행동특성에 대하여 1부터 4중 어느 한 숫자로 어느 정도나 자주 그러한 특성들을 자녀가 보이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영재적인 행동특성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에 따라 영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96명 아동의 케디위스크 개인 지능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지능검사는 언어성 지능검사와 동작성 지능검사로 나누어져 있다. 언어성 지능 검사의 하위검사로는 정보,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 숫자가 포함되어 있고, 동작성 지능검사에는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기호쓰기의 하위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박경숙 외, 1986). 전체 지능이 130이상인 아동중의 62명이 기초학습기능검사를 받았다. 기초학습기능검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1989년 개발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셈하기, 읽기 1(철자와 글자의 재인), 읽기 2(독해)의 하위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학년수준으로 피검자의 수준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박경숙 외, 1987).

IQ 130이상되는 아동만이 영재 집단에 포함되었다. 그 이유는 전체의 1~3%만을 영재로 정의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IQ 130이상되는 아동을 피험자로 삼았을 때, 이 집단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 개요

검사의 종류	집단 : 평균 (사례수)	t	df	p
케디 - 위스크				
전체 지능 지수	고 : 140.0 (226) 저 : 122.9 (70)	12.08	294	.000
언어성 지능 지수	고 : 135.4 (223) 저 : 123.6 (70)	8.34	291	.000
동작성 지능 지수	고 : 130.7 (223) 저 : 120.9 (70)	7.15	291	.000
행동특성 체크리스트	고 : 1.86 (218) 저 : 2.02 (70)	-2.34	286	.000
기초학습 기능 검사	고 : 2.68 (62)			

통계분석은 SPSSx 패캐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영재집단과 비영재집단간의 행동특성,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언어성 지능의 우월성등에서의 차이를 t-test와 chi square 분석을 함으로써 비교하였다. 또한 이들 여러 변인간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학습기능검사에 의하여 측정된 학업 성취 정도를 설명하는 변인의 종류와 그 설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결과

전체의 약 91%(726명중 656명)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지능지수가 130이상이었으므로, 부모들이 무선적으로 자녀를 영재교육실에 데리고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영재라고 생각하였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여러가지 요인중 어느 것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가 영재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동의 전체 지능을 기준으로 하여 IQ 130이상인 영재 집단과 IQ 130미만인 비영재 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두 집단의 학부모들이 체크한 행동특성 관련 점수중 학습 특성과 창의성 특성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행동 특성중 학습 특성과 창의성 특성에 관하여는 부모들이 자녀의 전체지능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분명히 다르게 체크하였지만, 그 외의 다른 특성, 즉 동기, 의사소통, 공간 추상적 사고등의 행동 특성에서는 전체 지능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비슷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전체지능 지수 130을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을 편성하였을 때는 IQ 130 주변의 점수를 가진 아동의 수가 자연 많게 되고 따라서 전체지능의 높낮이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분석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두 집단을 전체 지능,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각각에서 IQ 135미만의 집단과 IQ 145이상의 집단으로 편성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전체지능을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을 편성하였을 때, 두 집단의 아동의 행동 특성에 관한 부모의 판정은 동기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을 기준으로 하여 나눈 두 집단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언어성 지능을

기준으로 하여 나눈 두 집단 간에는 공간 추상적 사고 특성을 제외한 모든 행동 특성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작성 지능을 기준으로 하여 나눈 두 집단 간에는 어느 행동 특성에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언어성 지능이 135미만인 집단과 145이상인 집단의 행동특성 비교

변 인	집 단	사례수	평균	t	df	p
학 습	집단 1	143	1.91	3.38	178	.001***
	집단 2	37	1.51			
동 기	집단 1	143	1.96	2.89	178	.004**
	집단 2	37	1.67			
창 의 성	집단 1	143	1.99	2.85	178	.005**
	집단 2	37	1.68			
의사소통	집단 1	143	1.92	3.24	178	.001**
	집단 2	37	1.51			
공간추상	집단 1	143	1.94	1.66	178	.099
	집단 2	37	1.72			

집단 1 : 언어성 지능 135미만인 아동
집단 2 : 언어성 지능 145이상인 아동

〈표 2-2〉 동작성 지능이 135미만인 집단과 145이상인 집단의 행동특성 비교

변 인	집 단	사례수	평균	t	df	p
학 습	집단 1	175	1.83	1.01	183	.315
	집단 2	10	1.60			
동 기	집단 1	175	1.93	0.14	183	.887
	집단 2	10	1.90			
창 의 성	집단 1	175	1.95	0.78	183	.435
	집단 2	10	1.80			
의사소통	집단 1	175	1.86	1.12	183	.266
	집단 2	10	1.60			
공간추상	집단 1	175	1.93	1.02	183	.310
	집단 2	10	1.70			

집단 1 : 동작성 지능이 135미만인 아동
집단 2 : 동작성 지능이 145이상인 아동

행동 특성과 여러 지능간에 나타난 이러한 관계는 상관계수를 산출해 봄으로써 그 경향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표 3〉을 참조할 것).

〈표 3〉 지능 지수와 행동 특성간의 상관계수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전체지능
학 습	-.296**	-.031	-.212**
동 기	-.152*	-.067	-.124
창 의 성	-.228**	-.080	-.189**
의사소통	-.228**	-.080	-.188**
공간추상	-.145*	-.173**	-.183**
전 체	-.260**	-.092	-.215**

*** p<.001 ** p<.01 * p<.05

이상에서 영재로 판정된 집단의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우월한 아동의 수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은지를 분석해 보았다(〈표 4〉참조). 그 결과, 센터를 찾아온 아동의 72%가 언어성 지능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성 지능과 언어성 지능간의 차이가 의미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7이상의 차이가 나야한다(Anastasi, 1989). 두 지능간의 차이가 10이상으로서 충분히 차이있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조사한 결과, 언어성 지능이 우월한 아동이 전체의 30.8%인데 비하여 동작성 지능이 우월한 경우는 14.4%에 불과하였다.

Chi Square 분석에 의하면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높은 아동의 수와 그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는 아동의 수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4)=9.88$, $p<.05$). 또한 영재로 판별된 아동중 언어적 우월성을 보이는 아동의 수와 비영재로 판정된 아동중 언어적 우월성을 보이는 아동의 수간에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X^2(1)=4.92$, $p<.05$).

〈표 4〉 영재집단과 비영재집단의 언어성지능과 동작성지능간의 차이 비교

지수차이(IQV-IQP)	영재 (%)	비영재 (%)	전 체
동작성 우월 (-10이하)	32 (14.8)	10 (13.0)	14.4
동작성 우월 (-9 ~ -1)	43 (17.9)	13 (23.2)	19.2
차이없음 (0)	10 (2.7)	3 (10.1)	4.5
언어성 우월 (+1 ~ +9)	69 (30.9)	22 (31.9)	31.2
언어성 우월 (+10이상)	69 (33.6)	21 (21.7)	30.8
전 체	223 (100.0)	69 (100.0)	100.0

이러한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다회귀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기준 변인으로는 산수능력, 문자의 인지, 독해력에서의 過成就 정도를, 이들 각 기준변인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는 전체지능,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및 지능 검사의 하위검사 점수들을 설정하였다. 기준 변인 데이타, 즉 분야별 過成就 정도는 자기의 현재 학년과 실제 성취 학년 수준간의 차이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즉 3학년 아동으로서 읽기 능력이 5.5학년으로 나타난 경우, 이 아동의 독해력의 過成就 정도는 2.5(5.5-3) 학년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산수능력의 81%가 하나의 변인에 의하여 설명되었는데 그 변인은 동작성 지능이었다. 문자와 글자의 인지능력의 58%를 전체지능이 설명하였다. 나아가, 독해능력의 76%를 언어성 지능중 이해를 측정하는 하위검사 점수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준변인 별로 이상의 변인들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자, 변인 투입 기준인 .05의 한계에 도달하여 다른 변인들은 더 포함될 수가 없었다.

Ⅲ. 논의

가. 부모의 판별의 정확성 정도

본 연구 결과는 부모가 대체로 자녀의 영재성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정확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중매체나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듯,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영재가 아닌가 하고 착각한다는 생각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지능이 130미만인 아동은 전체 아동의 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집단의 아동들 조차도 평균 122.9 정도의 지능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영재성 판정에 매우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하겠다.

자녀가 똑똑하기는 하지만 영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보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적어도 영재교육실에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 조차도 부모들이 자녀의 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즉 자신의 자녀가 외부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에 따른 평가도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연구의 피험자들은 무선적으로 표집된 집단이 아니고, 영재교육실까지 자녀를 데리고 올 정도의 적극적인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녀를 영재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영재교육실까지 찾지 않은 부모들의 비율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미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과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비율의 부모들이 영재도 아닌 자녀를 영재라고 착각하고 있는가(false positive rate)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비율의 부모들이 영재 자녀를 평범하다고 오판하고 있는가(false negative rate)에 관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영재교육관련 기관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오판 비율을 확인할 수가 없다.

나. 영재성에 관한 부모의 개념

이 결과를 통하여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여 영재성을 판정하는데는 아동의 동작성 지능보다는 언어성 지능에 의하여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언어성 지능이 높은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가 영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하여 동작성 지능이 높은 아동의 부모들은 영재성과 관계가 없다고 보거나 별로 중요한 특성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Cohen(1957)은 독해능력의 많은 비중을 언어성 지능 검사의 하위검사중 정보, 어휘, 이해, 유사성의 4검사가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가하면 동작성 검사의 하위검사들은 지각 속도와 공간적 시각 요인을 주로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avis, 1956).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어휘가 풍부하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事象간의 비교를 잘하는 경우, 영재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비하여 공간적, 시각적 지각력이 뛰어난 경우는 영재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3~5세의 아동중 신동으로 소문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특성중 특히 영재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특징들을 자유로이 진술하게 하였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가 한글, 숫자, 한자, 알파벳을 일찌기 익히고 많은 단어를 암기했다고 진술한 것과 일관성이 있는 결과이다(조석희 외, 1986).

자녀의 영재성을 판별받고 싶어서 영재교육실을 찾아온 부모들의 이야기는 대동소이하다. "우리 아이는 3세때부터 글자를 가르쳐주는 대로 익혔다. 한글 뿐만 아니라, 천자문, 알파벳, 영어 단어 등 뭐든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날 물어보면 다 알고 있었다." "14개월 때 숫자를 알았고, 18개월 때 알파벳을 익혔다. 만 2세가 되기전에 영어 100단어를 암기하였고 22개월에 구구단을 암기하기 시작했다." "만 2세 때 엄마의 일기를 보고 연필로 글씨 쓰는 흉내를 내었고, 만 3세부터는 책을 줄줄 읽었다."

Benbow와 Minor(1990)는 영재성은 언어적 영재성과 수학적 영재성의 두가지로 대별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학적 영재들은 비언어적 요인과 속도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데 비하여, 언어적 영재들은 언어적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 언어적으로 조숙한 학생들은 언어 및 일반적 지식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수학적으로 조숙한 학생들은 언어적 추론, 공간적 능력 및 기억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상의 연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가 언어적 영재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수학적 영재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별로 특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영재성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학업성취도에 관한 분석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영재로 판별된 아동의 산수 분야의 過成就 정도는 1.90학년(범위는 .3부터 4.7학년)에 그치는데 비하여, 독해능력의 과성취 정도는 3.16학년(범위는 .5부터 5.5학년)이라는 수준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영재로 판정된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독해능력에서 산수분야 보다 1.26학년 정도 더 높은 과성취를

보였다.

언어적 지능이 영재성의 주요한 요소중 하나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주로 이미 축적한 지식, 경험을 중심으로 측정된 능력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 요소에 편중된 개념을 영재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원인은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학습이 무엇을 주로 요구하는가와 관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의 수업이나 평가가 주로 기억과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능력이 뛰어나야 영재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시각은 영재성은 학교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시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영재로서 학교공부에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음은 많은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일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서의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여 문제아, 또는 낙제생이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했었다. 이러한 오류가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의 시절 뿐 아니라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의 원인을 부모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지식의 주입과 암기 위주의 현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들의 영재성에 관한 개념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노력은 헛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학교에서의 성취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재성의 개념을 부모들에게 요구해야 한다면, 설사 부모가 영재성의 개념을 정확히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용기있는 부모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영재성의 계발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 아동 개인의 진정한 의미의 자아실현과 이를 위한 잠재력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교육은 개별화, 자율화, 다양화되어 아동의 개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영재의 특성중 실제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는 과제에 대한 집중력, 창의성, 공간 추상적 사고 능력등도 주요한 특성들임을 부모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영재성의 주요 특성들이 일반 아동에게서도 계발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격려

와 고무가 제공되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

참 고 문 헌

박경숙 외(1986), 「케디-위스크 개인지능 검사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 86-24, 한국교육개발원.

박경숙 외(1987), 「기초학습기능검사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 87-42,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외(1986), 「취학전 영재의 특성과 그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 및 문제점」, 연구보고 RR 86-41, 한국교육개발원.

Alvino, J. et. al. (1985), Parents' Guide to Raising a Gifted Child,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Benbow, C. P. & Minor, L. L. (1990), Cognitive profiles of verbally and mathematically precocious students : Implications for identification of the gifted. *Gifted Child Quarterly, 34,* pp. 21-26.

Cohen, J. (1957), A factor analytically based rationale for the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51-457.

Davis, P. C. (1956), A factor analysis of the Wechsler-Bellevue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6,* 127-146.

Ehrlich, V. Z. (1982), *Gifted children : A guide for parents and teacher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Goodnow, J. J. (1984), On being judged intellig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9,* 391-406.

Hess, R. D., Kashiwagi, K., Azuma, H., Price, G. G., & W. P. (1980), Maternal expectations for mastery of developmental task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5,* 259-271.

Holloway, S. D., & Hess, R. D. (1985). Mothers' and teachers'

attributions about children's mathematics performance.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177-199), Hillsdale, NJ : Erlbaum.

Hunt, J. McV., & Paraskevopoulos, J. (1980). Childr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the inaccuracy of their mother's knowledge of their abilit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ical, 136*, 285-298.

Louis, B. (1988). *Parental beliefs cncerning giftedness in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J.

McGillicudy-De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 The psychologicalconsequences for children* (pp. 7-24). Hillsdale, NJ : Erlbaum.

Renzulli, J. (1977). J. S. What makes giftedness? :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an*, pp. 180-184.

Roedell, W. C., Jackson, N. E., & Robinson, H. B. (1980). *Gifted young children*.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Sattler, J. M. (1988). *Assessment of children* (3rd ed.). San Diego, CA : Sattler.

Sternberg, R. J., & Davidson, J. E. (1985).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gifted and talented. In F. D. Horowitz & M. O'Brien (Eds.). *The gifted and talented :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37-44). Washington.